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추위도 걱정 마세요...”



왼쪽부터 총무원장 자승스님, 중앙총회 의장 성문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대불련 학생들, 신홍사 주지 우승스님.

‘소통과 화합, 혁신 기초’
총무원장 스님 신년회견

총본산성역화·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3대 핵심과제’ 발표

‘100인 대중공사’ 결성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
재정확충 방안 모색한다

▶ 관련기사 3면

저소득층 지원
‘아이연탄맨’
캠페인 확산

연탄 5장 기부 ‘자비나눔’
종단 지도층 등 대거 동참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실시하고 있는 ‘아이연탄맨’ 캠페인 열기가 불교계 안팎을 비롯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연탄 기부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아이연탄맨’ 캠페인은 총무원장 스님이 동참하며 3일 사이 참가자가 196명에서 297명으로 100명 넘게 늘어나는 등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열기가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과 대학생 불자들의 지목을 받아 지난 15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아이연탄맨’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하루 연탄 2장으로 힘들게 버티야 하는 이웃이 많다”며 “이웃을 위해 심심할만 함께 하자. 나눔으로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우승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등을 지목했다.

이에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김현철 국군불교총신도회장과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을 지목했고,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지난 16일 오전 부의장 자현스님과 삼보스님을 다음 주자로 선택했다. 같은 날 김동건 대표가 공창석 한국승가안전관리원장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불교계 안팎으로 자비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행편이 어려운 분들이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아이연탄맨’ 캠페인은 손바닥에 연탄 모양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 2명에게 사진을 전송하면, 지목받은 이들은 24시간 내에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후 5장의 연탄 비용(3000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seo@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올 미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어 갈 것을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습니다”를 종단운영의 기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33대 집행부부터 강조해온 소통과 화합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한 혁신으로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취지다.

총무원장 스님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주장과 의견을 함께 모아 이야기할 수 있는 탁마의 장을 열어 놓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가는 원융회통의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대중공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함으로써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을 2015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

히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조화로운 삶과 지혜로운 공존하는 이 시대 불교의 상징을 만들어 가는 일이자 한국불교사와 종단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그는 대작불사”라고 평가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의 가치가 시간과 공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통일사상인 화쟁을 기반으로 공존과 상생, 합심을 키워

고 마음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불교 통일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올바른 통일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중적 통일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계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에 세계 불교 지도자들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쟁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통해 송과 세모녀 사건, 세월호 참사,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갑

과와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불교가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사회적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사회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 해외구호지원 사업, 템플스테이를 통한 공익적 가치 구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총무원장 스님은 “조계종은 순간의 고통과 희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통과 화합, 혁신 그리고 공존과 상생, 합심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국민과 불자들을 향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불교사 대승 선불교 등 교육이사리 6명 선발

교육원은 종단의 승가교육과 연구를 책임질 교육이사리로 진관, 무예, 정천스님(이상 비구)과 부용, 여현, 우석스님(이상 비구니) 등 6명을 선발했다. 불교사 분야 교육이사리 진관스님은 ‘백용성의 불교실천운동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방대학원대학 연구교수를 지냈다. 정천스님은 동국대에서 한국불교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국대 정각원 불교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승불교 분야 교육이사리 무예스님은 통도사승가대학 강사이며, ‘길장의 대승현론 연구’로 동국대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부용스님은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대승불교기원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 기본선원 선강이다. 우석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사지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 참여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선불교 분야 여현스님은 동국대에서 ‘마조도일의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국대 강사다.

교육이사리 위촉기간은 3년이며, 위촉된 스님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여현경 기자

성지순례의 名家

더존투어

- 중남미, 아프리카, 발칸, 미주, 유럽, 러시아 전문
 - 세도나 명상투어 전문
 - 중국, 인도, 동남아, 부탄, 티벳, 스리랑카 직영
- 02.738.7661

고은 시인에게 문학의 길을 묻다 8면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소소한 즐거움

해가 바뀌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누구나 기원합니다.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사람들은 올 한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물론 그 이상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원의 내용에 상관없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도 올 한 해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소한 삶이 제 삶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산길을 거니는 것도, 햇살 한 줌에도 기쁨을 발견하며 살 수 있기를 진정 소원했습니다. 내 주변의 소소한 것들이 기쁨이 되는 삶이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고 원대한 것은 웬지 이 소소한 삶의 기쁨을 가로막는 그림자만 같아 포기하기로 한 지가 오래입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기쁨을 찾자는 것이 제 삶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상헌 신흠은 그의 저서 <야언(野言)>에서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뜻이 있는 글을 대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문을 열고는 좋은 벗을 맞이하는 즐거움이요, 문을 나서서는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책을 읽고 벗을 맞이하고 풍경을 찾아 거니는 삶의 즐거움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누구나 누리는 즐거움은 아니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뻘뻘한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할 테고, 큰일을 하는 사람들

은 그런 것이 무슨 즐거움일 수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소한 것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좀 가볍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든 찾아오는 즐거움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좀더 아름답게 살아가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일출이 밝게 떠오르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에 눈 뜨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나는 한 해를 밝히며 떠오르는 태양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해 열불암

2015학년 통도사승가대학 학인 모집

- 모집학과 치문과 00명, 사집과 0명
-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2015년 3월 26일(음2) 목요일 ~ 4월 7일(음2.1) 화요일
 - 입 사(入寺): 2015년 4월 7일 정오까지
 - 갈마 및 입학: 2015년 4월 9일 오후 1시 강원 큰방
- 구비서류
 - 입방원서, 승적사본(승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1부
 - 건강진단서(행정교육원에 제출한 것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됨)
 - 은사스님 추천서.....2부
 - 증명사진.....4매
 - ※사집과 방부자는 치문수로증 제출해야 함
- 준비물 만의가사, 장삼, 발우
- 문의처 및 접수처
 - 055)384-2035(강원, 사교반), 055)383-2363(강원, 큰방)
 - 055)382-7182(총무소 교무국)

영축총림통도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圓山 道明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貞珍

2015학년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입학 및 지원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15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연구원은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모집인원 전문과정 0명, 연구과정 0명
- 모집일정
 - 접 수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15년 3월 5일(음1.15 목(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전형 및 면접: 2015년 3월 6일(음1.16 금) 오후 1시
 - 면 접 장 소: 율학승가대학원 큰방
 - 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승려증사본(승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은사 및 학장스님 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 자기소개서 각1부
 - 사진(4×5) 5매
- 문 의 처 055)382-8348(율학승가대학원), 055)382-7182(통도사 총무소)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圓山 道明
율주 中山 慧南 율학승가대학원장 又雪 德文

불지중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通度寺
www.tongdosa.or.kr

